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시제 분석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지 선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시제 분석

지도교수 박 순 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지 선

임지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25일



주 심 교육학박사 박 매 란 (인)

위 원 언어학박사 박 순 혁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목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절대시제(Absolute tense)	5
2.1.1 현재시제(Present tense)	7
2.1.2 과거시제(Past tense)	9
2.1.3 미래시제(Future tense)	11
2.2 상대시제(Relative tense)	14
2.2.1 순수상대시제(Pure relative tense)	15
2.2.2 절대상대시제(Absolute relative tense)	19
III. 연구방법	28
3.1 연구대상	28
3.2 연구도구	29
3.3 연구도구 설계	31
3.3.1 고려된 항목	31
3.3.2 선행연구	34
3.3.3 제7차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	38

IV. 결과 분석 및 논의	40
4.1 순수상대시제(Pure relative tense)	43
4.1.1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44
4.1.2 과거분사(Past participle)	50
4.2 절대상대시제(Absolute relative tense)	56
4.2.1 대과거(Pluperfect)	56
4.2.2 미래완료(Future perfect)	60
4.2.3 과거 속 미래(Future in the past)	61
4.3 Sample Lesson Plan	64
V. 결론	77
참고 문헌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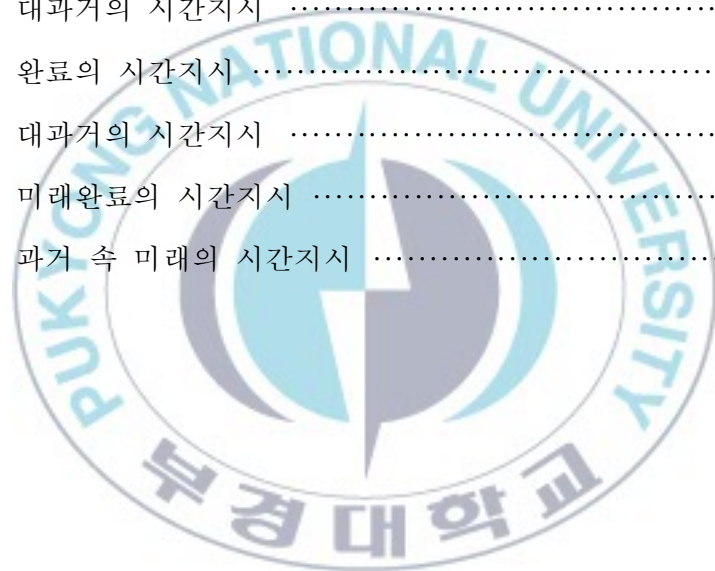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 자료의 출처	28
<표 2> 상대시제 연구도구	30
<표 3> 출판사별 상대시제 사용빈도	40
<표 4> 각 상대시제별 사용빈도	41
<표 5> Sample Lesson Plan	67



그림 목차

<그림 1> 순수상대시계의 시간지시	43
<그림 2> 과거진행의 시간지시	45
<그림 3> 현재진행의 시간지시	45
<그림 4> 대과거의 시간지시	51
<그림 5> 완료의 시간지시	51
<그림 6> 대과거의 시간지시	57
<그림 7> 미래완료의 시간지시	61
<그림 8> 과거 속 미래의 시간지시	62



**Relative Tense and Its Identification
in First Grad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Ji Sun L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 to recognize how tense in a subordinate clause is interpreted relative to a reference point provided by the context, ii) to classify “pure relative tense”, which relates the time of the situation relative to the reference point and “absolute relative tense”, which relates the time of the situation to the moment of speech via one or more intermediate reference times, iii) to examine each frequency according to the form of the nonfinite verbs with the frame that is designed to specify its usage and finally iv)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actice between distinctive forms based on the first grad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Language is a form of communication in which the interpretation must be realized in a relative relationship. Relative tense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matter as it needs to consider a reference point and locate a situation by logical inference from the context, otherwise it could describe different situations and might lead to a total misunderstanding. This dissertation aims to help open the possibility for the govern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ssue of relative tense in the textbooks or set any guidelines on this, for teachers to broaden its meaning and application to a classroom environment with concrete plans and for learners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and develop

a range of tense usage with more variety.

To achieve these goals, relative tense in thre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focused on Comrie(1985)'s approach. 193 nonfinite verbs in embedded clauses were not only classified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pluperfect, future perfect and future in the past but examined to identify the distinct features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re relative tense were four times more often used showing 79.27% frequency compared to absolute relative tense with 20.73% over all. Each textbook demonstrates dominant pure relative tense use as well with the same ratio. Regarding the most frequently appeared relative tense form in the textbook, the present participle was the best and past participle, pluperfect, future in the past follow after in order. Future perfect, however, wasn't shown up at all throughout the whole reading passage in the context. It clearly represents that the relative complexity of absolute-relative tense was reflected enough in the first grade textbooks, relatively lower than the second and the third considering a strong tendency of language to select rather easier and short form.

Next, the representatives of pure relative tense, present participle and past participle, illustrate that they are possibly interpreted into three different ways. The interpretation depends on whether they have absolute time reference, relative time reference or the time reference with some other time point given by the context as a reference point, which can be offered as an adverbial of temporal location or in the wider context. The notable attribute of each was that the present participle is always interpreted as coinciding with the reference point while the past participle has past time reference.

Finally, pluperfect, future perfect and future in the past that stand for absolute relative tense portray that they should consider the present moment to locate a situation along with a reference point as a form of combining both absolute time reference and relative time reference. Pluperfect is able to

describe two individual situations on account of co-occurring time adverbials. The adverbials might determine a reference point but may also encode the time at which the situation is located depending on the context. With future in the past, a situation can be located at, before, or after the present moment based on a relative relation between a situation and the present moment. The background plays an important role to determine the chronological order here again. Time adverbials could describe a specific time point or interval of time longer than a point. Not a single item did show the first grad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regarding future perfect.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역들 중 하나로서 논쟁의 시작은 그 정의에서부터 비롯된다. 비록 많은 언어학자들이 “시제란 시간의 위치에 대한 문법적인 표현장치이다”(Comrie, 1985:9)라고 시제를 정의하는데 동의하지만 “시제와 시간은 그 원리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Leuschner, 1977:99)는 의견을 비롯하여 과거시제와 비과거시제의 구분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구분이라기보다 오히려 ‘remote’와 ‘non-remote’ 또는 ‘actual’과 ‘non-actual’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의견을 달리해오고 있다(Declerck, 1995).

그 중 Reichenbach(1947)의 시제이론은 많은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Harder, 1996). 그는 시간에 의존하는 서술어들의 의미론적인 해석이 일련의 담화 속의 문맥 내에서 상대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의 저서 *Elements of Symbolic Logic*을 통하여 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시(ST, speech time)와 기준시(RT, reference time)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mrie(1985)는 그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제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근본인 기준점을 중심으로 시제를 구분하는 상대시제(relative tense)의 개념을 절대시제(absolute tense)의 그것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상대시제는 기준시를 담화 상 결정된 시간 중 하나에 고정시키는 시제(Andersen, 1973:40; Comrie, 1985:36, cf.1-2; Dahl,

1985:25)로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제(Fanning, 1990:17) 또는 또 다른 상(Fanning, 1990:85)의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Olsen, 1997). Comrie(1985)의 이론은 Reichenbach(1947)와 더불어 구문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적인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제를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들 중 몇몇은 모국어 학습자들을 통하여 시제의 발전단계 순서를 절대시제의 대조에서 상대시제 구성요소가 포함된 시제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Amidon & Carey, 1972; Buczowska & Weist, 1991; Ferreiro & Sinclair, 1971; French & Brown, 1977; Piaget, 1959). 이러한 연구들은 시제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의미(meaning)와 함의(implicature)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한 Comrie(1985)의 연구와 함께 상대적인 시제구분이 학습에 있어 좀 더 높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한국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중 하나가 시제의 해석과 연관된다는 것과 결국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은주, 2008; 이평웅, 2002; 조정례, 1988).

상대시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실수업은 단지 학교 영문법에서 다루는 12가지 시제체계¹⁾를 중심으로 형태와 단순한 의미전달에 그칠 뿐 시제가 문맥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함의를 가지고 각기 달리 분석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제해석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고 또 실제 높은 오류발생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시제

1) 학교 문법에서 주로 다루는 시제는 Curme(1931)이 주장하는 네 개의 절대시제(absolute tenses: past, present, perfect, future)와 두 개의 상대시제(relative tenses: past perfect, future perfect)의 여섯 가지 시제체계에 be + ~ing를 합한 12시제이다(심정하, 2004).

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토대로 한 교실 수업으로의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경우 이러한 연구는 교실 수업 내에서 교과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교실 수업의 중심을 이루는 주된 입력원으로써 대부분의 교실 활동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Littlejohn(1998)은 교과서가 언어교수 및 학습에 있어 하나의 ‘완성품(packages)’으로써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해 지시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장치(pedagogic device)’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일을 담당한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박수영, 2009:2). 따라서 상대시제에 관한 연구는 교과서를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대시제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Comrie(1985)의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시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연구도구는 Comrie(1985), Declerck(1991) 그리고 Reichenbach(194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유형별로 상대시제를 구분하여 시간선상에서 어떠한 의미와 함의를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대시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상대시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교과서들 중 하나를 선별하여 수업의 표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sample lesson plan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영어교과서의 내용 구성 시 지침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리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Comrie(1985)의 연구를 중심으로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를 구분하고 상대시제를 다시 순수상대시제와 절대상대시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대상, 연구도구 그리고 연구도구 설계 시 고려한 연구도구 제외항목, 선행연구 그리고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 4장에서는 교과서에 수집한 예문을 연구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림과 함께 그 의미를 고찰해 본다. 수업 시 표본자료가 될 수 있는 sample lesson plan 또한 함께 제시된다. 그 후, 제 5장에서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중 3종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풍부한 예문을 통해 상대시제에 관한 다양한 용례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완료가 사용된 구문이 전무하였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에서 나타난 예문을 중심으로 상대시제를 그 특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실제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활동에 있어서 본 연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를 통한 전후 인식 및 사용능력에 관한 비교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시제 인식 및 사용능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에 관해서는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절대시제(Absolute tense)

Comrie(1985)가 제안하는 절대시제란 현재순간을 지시(reference)의 중심으로 삼는 시제를 말한다. 절대시제의 형식적 표현²⁾을 위해서는 현재의 순간뿐만 아니라 상황이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나 시간 간격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을 S(for moment of speech) 그리고 상황이 차지하는 시점이나 시간 간격을 E(for moment of event)로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S와 E 사이에 상호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before, after, simul(taneous)과 같은 일시적 관계를 설정한다.

그 중 before와 after를 통해 표현된 관계는 단어 자체의 함의를 그대로 반영한다. 즉, 시간선 상에서 X에 속하는 각각의 시점들이 Y에 속하는 각각의 시점들보다 왼쪽에 있을 경우, 'X before Y'의 관계가 성립되어 X의 시간간격이 Y의 시간간격 이전에 존재하게 된다. 'X after Y'는 X에 속하는 각각의 시점들이 Y에 속하는 각각의 시점들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X simul Y'는 X에 속하는 각각의 시점들이 Y에 내포되거나 반

2) Comrie(1981)는 Reichenbach(1947)와 유사한 형식적 표상을 나타내지만 이후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라는 두 가지 체계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제체계의 구분은 다양한 기준점들의 존재가능성 여부를 밝힌다는 점에서 Jespersen(1924:254-257)과도 개념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Bull(1963:20-33)은 두 개의 기준점을 허용함으로써 조건완료문의 일시성(temporal value of the English conditional perfect)을 나타내고 있으나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수의 기준점들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고 있지 못하다(Comrie, 1985:122).

대로 Y의 각각의 시점들 속에 X가 내포됨을 의미한다. 이는 simul이 대칭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X simul Y'와 'Y simul X'가 서로 동일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시제가 문법적 범주로서 인식되는 한 simul의 의미관계에 관한 명시는 그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언어 자체가 특정한 시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시제와 특정한 시점 주위의 시간상황을 표현하는 시제에 관한 문법적 범주를 달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before와 after는 특성상 역의 관계가 성립되며 'X before Y'는 'Y after X'에 상응한다.

앞서 주어진 두 시점(S, E)과 세 가지 관계(simul, before, after)를 가지고 절대시제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1) a. present | E simul S |
| b. past | E before S |
| c. future | E after S |

절대시제의 분류 이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 속에서 과거와 비과거, 또는 미래와 비미래와 같은 이분적인 시제 구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분적 시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 |
|-----------------|-------------------------|
| (2) a. non-past | E simul S or E after S |
| b. non-future | E before S or E simul S |

하지만 이분적인 시제구분은 단일한 문법적 범주로 표현할 수 있는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before와 after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의 형태인 not-before와 not-after를 통해 앞서 언급한 non-past와 non-after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제한된 범주의 영역을 벗어난다.

(5) The author is working on chapter five.

현재시제는 현재의 짧은 순간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점유하는 상황을 언급하는데 특징적으로 사용된다. 특별히 (5)와 같이 현재의 순간을 담고 있는 상태나 과정을 언급하는데 쓰이는데 이러한 상태나 과정은 현재의 순간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황이 현재의 순간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6) John goes to work at seven o'clock (every day).

현재시제는 또한 대표적으로 습관적인 상(habitual aspects)의 의미를 지니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도구로써 사용된다. 위 예문 (6)에서 나타난 문장은 발화 순간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현재시제의 의미와는 다소 상반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간격을 이루는 일련의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는 습관적인 상의 경우 이를 하나의 속성으로 취급하여 현재의 순간을 내포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순간을 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는 시제와 현재의 순간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는 시제의 범주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에서 나타난 상황이 비록 발화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John이 가지는 특정한 속성으로 간주하여 현재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습관의 의미는 시제(tense), 상(aspect) 그리고 법(mood)이라는 세 가지 체계의 경계선 위에서 어떻게 정

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증적 견지에서 시제체계보다 언어의 상이나 법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보통이다.

(7) Elks eat grass.

습관을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시제와 구분되지 않듯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실을 나타내는 보편시제(universal tense) 역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7)의 문장을 보편적인 진실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시제의 의미를 넘어 구조적이며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편성은 물론 always/usually와 같은 시간 부사어를 통해 명백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재시제의 의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 시제 선택 시 기본적인 문법적 요소 이외에도 화행적 요소와 같은 보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2 과거시제(Past tense)

과거시제는 시간선 상에서 현재순간을 나타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각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의 일시적 위치에 대한 유추는 단순한 시제의 선택보다는 요소들의 결과에 의거한다.

- (8) a. At eight o'clock yesterday Mark promised to give me twenty pounds.
b. Mary lived in Vancouver from 1962 to 1982.
c. Up to this moment, this cancer was incurable.

(8a), (8b) 그리고 (8c)에서 드러나듯 과거시제는 단순히 상황을 현재의 순간 이전에 위치시킬 뿐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그리고 현재순간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뚜렷하게 구분 짓지 않는다.

- (9) a. Alice was in New York.
b. Alice has been in New York.

(9a)와 (9b)에서 과거시제의 중립적인 의미해석이 나타난다. (9a)의 경우 Alice가 과거에 New York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사실적 정보 공유와 동시에 과거에 Alice가 New York에 없었던 시간 또한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반면 (9b)는 단지 Alice가 New York에 있었던 명제만을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잡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가 언급되지 않는다. 주어진 과거시제의 해석에 그 의미는 달라진다.

- (10) a. Stephen used to live in London.
b. Megan was eating her lunch (when I looked into her room).

과거시제는 또한 상황이 현재 혹은 미래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언급 없이 상황을 과거에만 둔다. 이는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진술은 현재의 순간과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는 Grice's maxim of relation (relevance)³⁾을 따르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황을 위치시키는 문법적 형태를

3) 대화는 협동적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격률들로 구성된다.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대화 간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Maxim of Relation/Relevance) 그리고 정보는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양태의 격률(Maxim of Manner)이 있다(Grice, 1975).

사용할 경우 상황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 보다 명백해진다. (10a)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Stephen이 더 이상 London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과거진행을 나타내는 구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존재하며 그 예는 (10b)와 같다. 상황을 오직 과거에만 두고자 할 경우 문법적인 형태보다는 두 절을 하나로 연결하거나 no longer이라는 어휘 요소를 추가하여 나타낸다.

2.1.3 미래시제(Future tense)

미래시제는 일반적인 언어학 이론과 개별 언어 분석에 있어 모두 그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존재해왔다. 과거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행동에 관한 통제를 넘어 불변하지만 미래는 사건에 관한 우리의 의식적인 개입 등의 중재를 통하여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측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과거와 현재는 시제의 차이를 보이지만 미래는 시제보다 법의 차이를 보인다고 간주하는 이도 있다.⁴⁾ 이러한 개념적 특성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측면에서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일 뿐 시제와 관련한 다른 영역에서는 유사하다고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11) a. It will snow tomorrow.

b. It may snow tomorrow.

4) Fleischman(1982)은 미래적 시간지시(future time reference)와 법(mood)에 관한 상호작용을 Romance languages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Comrie, 1985:44).

Comrie(1985)에 따르면 미래시제는 미래사건에 관해 분명한 예측을 하므로 대안적인 세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조동사의 구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11a)는 현재에 뒤따르는 특정 순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한 확고한 진술로서 그 진위여부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관찰을 통해 판별될 수 있다. 반면 가능성을 나타내는 (11b)의 경우 그 진위성이 논의 존재 또는 부재 모두와 양립할 수 있으며 목적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있음직한 세계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듯이 조동사에 의해 나타난 진술의 진위여부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조동사의 의미를 꼭 지니지 않는 미래적 시간지시는 존재가능하다.

- (12) a. Loy will go swimming in dangerous waters.
b. The train departs at six o'clock tomorrow morning.

영어의 전통 문법에서는 영어가 조동사 will(shall 역시 가능)이라는 형태를 통해 미래시제를 표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반박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첫째, 조동사 will이 미래적 시간지시에 더하여 다양한 용법들을 가지는데 반하여 일반적인 조동사는 특별히 미래적 시간지시를 그 용법으로 가지지 않는다. (12a)는 현재적 시간지시와 관련한 자유의지를 나타내는데 현재적 시간지시와 관련한 예측은 조동사가 가지는 다양한 용법들 중 하나이다. (12b)처럼 조동사 will의 사용 없이 현재시제로도 충분히 미래적 시간지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다만 주절에 미래적 시간지시와 관련한 현재시제를 사용할 때는 문장 내에 나타난 상황이 반드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종속절이 특히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의미를 가지는 절의 경우 미래적 시간지시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은 보통 종속절이 아닌 주절에서 사용된다.

- (13) a. If it *will snow tomorrow, we will get wet.
b. If it snows tomorrow, we will get wet.
c. If Loy will go swimming in dangerous waters, he will drown.

하지만 조건절 속에서도 will이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13c)와 같이 will의 사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적 시간지시에 사용되는 will의 사용은 종속절 내에서 조동사적 용법을 지니며 사용되는 will과는 문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영어는 미래적 시간지시를 나타내는 구분된 문법적 범주 즉, 미래시제를 가진다는 것을 Comrie(1985)는 밝히고 있다.



2.2 상대시제(Relative tense)

Comrie(1985)에 따르면 절대시제는 상황(E)을 현재의 순간(S)에 관련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상대시제는 더 나아가 기준점(R)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 중요성을 더한다. 두 시점(R, E)과 세 가지 관계(simul, before, after)를 이용하여 상대시제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14) a. relative present E simul R
 b. relative past E before R
 c. relative future E after R

상대적인 비과거와 비미래의 구분의 경우 다음과 같다.

- (15) a. relative non-past E not-before R
 b. relative non-future E non-after R

상대시제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점(R)이 문맥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순간과 같이 어느 지시적 중심과 관계된 시간 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상대시제의 의미는 기준점을 어디에 고정시킬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Comrie(1985)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urme(1931)은 네 개의 절대시제와 두 개의 상대시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절대시제를 화자가 다른 행위를 참조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의 관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시제라 정의하며 과거, 현재, 완료, 미래의 네

가지로 구분 짓는다. 상대시제는 크게 과거완료와 미래완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진행은 상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문제로 따로 구분하여 시제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는다(심정하, 2004).

Reichenbach(1947)는 Comrie(1985)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로서 상대시제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준시(RT, reference time), 발화시(ST, speech time), 사건시(ET, event time)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기준점은 절의 단위에서 심리학적이거나 가상의 일시적 위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발화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화자가 상황을 과거, 현재 혹은 미래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화시점과 관련한 상대적인 기준점(R relative S)의 위치이다. 하지만 사건시와 기준시의 설정에 관해 완료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에 관한 언급은 그의 연구에 등장하지 않는다(Bohnenmeyer, 2003).

Klein(1994)은 Reichenbach(1947)와 Comrie(1985)처럼 3가지 변수를 제시한다. 발화시(TU, time of utterance), 상황시(Tsit, time of situation) 그리고 주제시(TT, topic time)가 그것이다. 그는 주제시를 “the time span to which the speaker’s claim on this occasion is confined(Klein, 1994:4)”라고 정의하며 시제란 바로 주제시와 발화시에서 비롯되는 3가지 관계(in, after, before)를 통해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제시가 Reichenbach(1947)의 기준시와 다른 개념이며 상대시제가 ‘상’의 개념과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2.2.1 순수상대시제(Pure relative tense)

절대시제는 상황의 위치에 대한 시간적 기준점을 현재의 순간으로 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어의 정형동사(finite verb) 형태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absolute time reference)와 연관된다. 하지만 상대시제는 현재의 순간이 아닌 문맥에서 주어지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비정형동사(non-finite verb)의 형태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relative time reference)와 관련성이 높다.

Comrie(1985)는 시간 부사어들(time adverbials)을 절대적인 관점에서의 시간지시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각각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순간과 관련하여 상황의 위치를 표현하는 시간 부사어들의 종류에는 today(the day including the present moment), yesterday(the day preceding the day including the present moment), tomorrow(the day following the day including the present moment)등이 있으며 이들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문맥에서 주어지는 기준점과 관련한 시간 부사어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on the same day, on the day before, on the next day가 있으며 이들은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보다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Comrie(1985)에 따르면 영어에서 순수상대시제는 거의 분사구문이 유일한 예이다(Harder, 1996). 분사구문은 아래와 같이 관계절에 대응된다.

- (16) a. The passengers awaiting flight 33 proceeded to departure gate 7.
- b. The passengers who were awaiting flight 33 proceeded to departure gate 7.
- c. The passengers who are awaiting flight 33 proceeded to departure gate 7.

(16a)는 크게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16b) 그리고 (16c)와 같다. (16b)는 awaiting의 시간지시를 본동사 proceeded의 시간지시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지는 정형동사 proceeded의 시간지시가 과거이므로 awaiting의 시간지시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따른다. 하지만 were awaiting과 proceeded의 시점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형동사 proceeded는 awaiting의 시간지시를 단지 절대적인 관점에서 과거로 돌 뿐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c)는 현재의 순간에 보다 초점을 둔 해석으로 정형동사의 시제를 따르는 해석과는 차이를 보인다. 분사구문의 해석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맥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이동경로를 이전에 언급하며 현재는 flight 33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맥을 추가한다면 두 번째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말미암아 영어의 현재분사는 (16b)와 같은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16c)와 같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 속에서 해석의 혼동을 가져온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주절에 드러난 시간지시 또는 현재의 순간 그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문맥에 의해 제시된 기준점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17) a. The passengers awaiting flight 33 yesterday proceeded to gate 7 the day before.

b. The passengers who were awaiting flight 33 yesterday proceeded to gate 7 the day before.

기준점을 설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시적 시간 위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삽입하는 것이다. (17a)에서는 시간 부사어 yesterday를 통해 분사 awaiting의 일시적 위치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준점은 또한 문맥 내에서 제시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맥이 제시될 경우 (17b)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Suppose someone asked about the passengers who had been awaiting various flights yesterday, in order to find out what gate they had proceeded to on their flight of the previous day.

(Comrie, 1985:58)

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난 상대시제의 경우 능동태 또는 수동태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과거적 시간지시를 가진다.

- (18) a. The passengers denied boarding on flight 33 proceeded to gate 7.
b. The passengers who had been denied boarding proceeded to gate 7.
c. The passengers who have (just recently) been denied boarding proceeded to gate 7 yesterday.
d. The passengers who had been denied boarding up to the day before yesterday proceeded to gate 7 yesterday.

(18b)는 proceeded의 시간지시를 기준으로 삼아 비정형동사 denied를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를 대과거(pluperfect)로 표현하고 있다. (18c)

와 같이 현재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거나 (18d)처럼 문맥상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기준점을 달리 잡을 수도 있다.

상대시제의 경우 원리상 주어진 문맥과 호환가능한 잠재적인 기준점들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문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순간을 상대시제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차이점은 현재의 순간과 기준점이 되는 또 다른 시점의 구분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기준점으로서 현재의 순간을 명시하는 형태와 명시하지 않는 형태와의 구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상대시제는 가능한 기준점들 중 하나로 현재의 순간을 내포하지만 이는 일종의 의미(meaning)보다는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2.2 절대상대시제(Absolute relative tense)

상황을 현재의 순간 또는 그 전후로 두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문맥에서 주어진 기준점 또는 그 전후로 두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결합한 단일한 동사의 형태도 있다. 즉, 기준점을 현재의 순간 또는 그 전후로 두고 거기에 더하여 상황을 그 기준점 또는 기준점 전후에 위치시키는 동사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여 기준점을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 두고 상황을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 두는 시제를 절대상대시제라 칭한다. 이 때 기준점이 현재의 순간과 일치하면 절대상대시제가 아닌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지시를 가지게 되지만 상황이 과거의 기준점 또는 미래의 기준점에 위치할 경우에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 시간의 위치를 구분할 수 없다.

절대상대시제로는 대과거(pluperfect), 미래완료(future perfect), 과거 속

의 미래(future in the past)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19) a. pluperfect | E before R before S |
| b. future perfect | E before R after S |
| c. future in the past | E after R before S |

가. 대과거(Pluperfect)

영어에서 절대상대시제의 개념은 대과거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대과거는 기준점을 과거에 두고 상황을 그 이전에 두는 것으로서 ‘과거 속의 과거’를 의미한다. 문맥 내에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20) a. Kelly had arrived by eight o'clock yesterday evening.
b. When Julia had left, Daniella emerged from the cupboard.
c. The clock struck ten; Joe had already left.

첫째, 시간 부사어를 통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20a)는 시간 부사어를 이용하여 기준점을 과거 8.00 pm yesterday로 설정하고 Kelly의 도착 상황을 그 이전에 둔다. 둘째, 대과거를 포함하는 종속절과 주절이 나란히 오는 경우 주절의 시제를 통해 기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20b)에서는 과거시제를 가지는 주절의 동사를 통해 기준점을 과거로 정의하고 Julia가 떠나는 상황을 그 시점 이전에 두고 있다.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를 뒤바꾼 역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좀 더 일반적 경우 기준

점이 문맥 내에서 할당되기도 한다. (20c)는 일련의 독립적인 절들의 결합 속에서 기준점과 상황이 설정되는 예를 보여준다. 먼저 첫 번째 절의 동사가 기준점을 과거로 규정하고 두 번째 절의 동사는 대과거를 통해 Joe가 떠난 상황을 그 이전에 위치시킨다.

(21) a. Kyle had already left at six o'clock.

b. Annie came to visit Kyle at six o'clock; but Kyle had already left at six o'clock.

c. The clock struck seven; Kyle had already departed at six o'clock.

앞서 언급된 첫 번째 예와 같이 시간 부사어는 종종 대과거의 기준점을 결정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황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21a)의 시간 부사어 six o'clock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six o'clock이 기준점이 되어 Kyle이 그 이전에 떠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ix o'clock이 Kyle이 떠난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 문맥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점이 마련될 수 있다. 좀 더 확장된 문맥이 제시된다면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해진다. (21b)는 six o'clock이 기준점이 되어 Kyle의 출발을 그 이전에 두고 있다. 반면 (21c)는 선행하는 절속에 seven이라는 기준점 제시를 통해 필연적으로 six o'clock이 Kyle이 출발한 시간을 의미하도록 하고 있다.

Reichenbach(1947)은 이러한 대과거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From a sentence like 'Peter had gone' we had see that the time order expressed in the tense does not concern one event, but

two events, whose positions ar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point of speech. We shall call these time points the point of the event and the point of reference. In the example the point of the event is the time when Peter went; the point of reference is a time between this point and the point of speech.

(Reichenbach, 1947:288)

대과거의 존재는 상황을 현재의 순간과의 상대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간 순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단순한 과거시제의 나열만으로는 종종 사건의 전후관계를 명백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시간 순을 따라 나열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시간 순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과거는 이상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나. 미래완료(Future perfect)

미래완료는 문맥에서 추론될 수 있는 기준점을 미래에 설정하고 상황을 기준점 이전에 일시적으로 위치시킨다. 따라서 기준점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과거와 유사하다. Reichenbach(1947)가 미래 완료를 $ST < ET < RT$ 로 구분한데 반하여 Comrie(1985)는 사건시 E와 발화시 S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상대적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E before S, E simul S, E after S).

- (22) a. I will have finished this manuscript by the end of next month.

- b. So you're not arriving here until Tuesday; unfortunately, I will have left.
- c. I will have left by then.

기준점은 (22a)와 같이 특정 시간 또는 기간을 표시하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22b)처럼 문맥 내에서 제공되기도 하며 (22c)에서 보듯 같은 절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시간 부사어가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대과거와 맥을 같이 한다.

(23) Jason will have finished his writing by tomorrow.

미래완료는 그 해석에 있어 형태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글 또는 말 속의 함의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 화자에 의해 (23)과 같은 문장이 발화된다면 문맥을 통해 대화 상대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간주된다. 만약 화자가 Jason이 이미 끝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록 미래의 상대적 불확실성에 대한 제고가 있을지언정 대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정보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Grice(1975)의 양의 격률에 따르면 화자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함으로서 적당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화자가 미래완료의 사용을 통해 사실보다 불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화 상대자는 아직 Jason이 끝내지 못했다고 잘못 유추할 것이다.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미래적 시간지시가 미래완료의 형태적 의미보다는 함의에서 기인된다는 관점에서 볼 경우 이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화자로 하여금 거짓 함의를 이끌어내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4) Kath: Will Jason have finished his writing by tomorrow?

Paul: Yes; in fact, he has already finished it.

일반적인 함의의 특성상 미래적 시간지시에 대한 함의가 문맥에 의해 무효화(cancellation)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24)에서는 Kath의 대화 상대자인 Paul이 Jason이 이미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때 yes는 Jason will have finished his writing by tomorrow라는 명제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 명제의 일부가 Jason이 글을 마치는 상황을 Paul의 발화시점과 문장에 의해 드러난 시점 tomorrow의 중간에 두고 있다면 뒤따르는 답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미래적 시간지시가 미래완료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yes만을 가지고 John이 아직 끝내지 않다는 함의를 드러내기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뒤따르는 대답을 통해서만 그 함의를 무효화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25) Kath: Will Jason finish his writing between now and tomorrow?

Paul: *Yes; in fact, he has already finished it.

동일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25)의 Kath의 발화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Kath의 물음에 Paul이 (24)와 동일하게 답한다면 yes라는 처음의 대답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 (25)의 경우 yes에 뒤따르는 in fact, he has already finished it이라는 대답이 John이 끝내는 시점을 과거에 두는데 반하여 yes라는 단순한 대답은 Kath의 질문과 관련하여 시점을 미래에 두므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대답은 yes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26) If it snows tomorrow, we'll have worked in vain yesterday.

미래완료는 과거적 시간지시를 가지는 부사어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제 댐 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아직 그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전까지 눈이 오지 않는 것은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불행히도 일기예보는 다음날 눈을 예고하고 이 때 한 인부가 (26)과 같은 문장을 발화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제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미래적 시간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에 위치하므로 미래완료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되어봐야 알 것이고 그로 인해 어제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지에 관해서도 아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간 부사어 yesterday의 사용 또한 작업 시점이 어제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업의 시점은 과거 즉 어제이지만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지에 관한 시점은 그 평가가 다음 날인 내일 일어나므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완료는 이와 같이 원리상 과거 시간 부사어와 결합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결합이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미래완료의 형태 자체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아닌 함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많은 언어들 속에서 발견되는 절대상대시제의 형식적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시간관계와 이를 나타내는 형태가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합성성(compositionality)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과거와 비과거의 구분을 형태학적 외부구조에 둔다면 이러한 구분은 먼저 현재의 순간과 첫 번째 기준점과의 관계 설정에서 시작된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내부 구조들을 통해 뒤따르는 기준점들과 끊임없는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관계는 결국 마지막 기준점과의 상황 속에서 종결된다.

대과거 had gone은 기준점과 현재의 순간 사이에 과거적 관계가 먼저 성립한 후 상황과 기준점 사이에 다시 과거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미래완료 will have gone은 기준점과 현재의 순간 사이에 미래적 관계(will)가 성립된 다음 상황과 기준점 사이에 과거적 관계(have gone)가 형성된다. 과거 속의 미래 would go의 경우 기준점을 현재의 순간 이전에 두는 과거적 관계(would)가 먼저 설정된 이후 상황과 그 기준점 사이의 미래적 관계(will) 성립이 뒤를 잇는다. 하지만 절대상대시제가 모든 언어에 있어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합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다. 과거 속의 미래(Future in the past)

과거 속의 미래에서 등장하는 미래는 조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시성을 지닌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미래 속의 미래(future in the future)보다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다. 다음은 간접화법의 한 예이다.

(27) He said he would leave.

(27)의 간접화법 속에 쓰인 would leave는 주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에 의해 설정된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상황을 상대적으로 미래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직시의 중심 이동과 관련한 분석은 간접화법 속의 시제 사용에 대해 잘못된 추측을 낳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이 간접화법의 시제를 분석하는 것은 절대상대시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28) a. John left for the front; he would never return.

b. John was about to leave.

과거 속의 사건들이 기본적인 순서배열(basic narrative sequence in the past)을 가지거나 미래적 시간지시 대신 좀 더 완곡한 표현(periphrases with future time reference)을 사용하는 경우 절대상대시제에 관해 보다 분명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8a)는 선행하는 절이 기준점을 과거로 설정하고 뒤따르는 절이 이를 기준으로 상황을 상대적으로 미래에 위치시키고 있다. 뒤따르는 절은 비록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John의 상황이 언급된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현재 그리고 끝나는 시점까지 전반적인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고 여겨진다. 과거적 시간지시 속의 미래는 의미변수의 추가를 통하여 미래적 시간지시를 완곡한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다. (28b)가 이와 같은 경우로 John이 출발하는 상황은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존재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본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문 이외의 영역에서 상대시제와 관련한 구문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나 분석 영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이를 제한하고자 본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3종의 교과서를 A, B, C의 기호로 표기하여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교과서, 페이지] 로 표시하기로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된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의 출처

교과서	출판사	저자	분석영역
A	(주)천재교육	이재영 외 6인	본문
B	(주)두산동아	김성곤 외 8인	본문
C	(주)능률교육	이찬승 외 5인	본문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상대시제의 개념을 언급한 Curme(1931), Reichenbach(1947), 그리고 Comrie(1981, 1985)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Comrie(1985)의 *Tense*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연구도구를 자체 제작하였다. 상대시제는 이러한 연구도구를 통해 크게 순수상대시제와 절대상대시제로 구분된다. 상대시제가 주로 종속절에서 쓰이는 비정형동사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순수상대시제의 범위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대표되는 분사(participle)로 한정하기로 한다. 절대상대시제 역시 대과거(pluperfect), 미래완료(future perfect) 그리고 과거 속의 미래(future in the past)의 의미를 가지는 형태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본 논문은 상대시제의 연구를 위한 것으로 비정형동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형동사들 간의 시간관계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상대시제의 다양한 기준점들의 위치 및 상황간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제시하고자 분석시 자료로 사용된 본문의 내용은 시간선상에서 재현되어질 것이다.

사용된 상대시제의 연구도구는 박스로 처리된 영역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2> 상대시제 연구도구

relative tense	pure relative	relative present	E simul R
		relative past	E before R
		relative future	E after R
	absolute- relative	relative non-past	E not-before R
		relative non-future	E not-after R
		pluperfect	E before R before S
		future perfect	E before R after S
		future in the past	E after R before S
		future in the future	E after R after S
		future perfect in the past	E before R1 after R2 before S

3.3 연구도구 설계

3.3.1 고려된 항목

교과서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상대시제의 연구도구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미래시제가 아닌 단순히 미래적 시간지시를 가지는 구조는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영어는 미래적 시간지시와 관련되는 간단한 비정형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비록 ‘about to’와 같이 미래에 근접한 의미를 가진 구조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미래 속에서 발생하는 즉각적 미래가 아닌 단순히 가까운 미래(immediate future)를 언급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미래의 상황이 아닌 그와 관련된 성향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단순 미래적 시간지시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과거의 거울과도 같은 미래 속의 미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과거가 상황을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과거에 두듯 미래 속의 미래는 상황을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미래에 두는데 영어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구조가 ‘will be about to’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out to’나 ‘be going to’와 같이 미래시제가 아닌 미래적 시간지시를 나타내는 다양한 구조들에 관한 분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둘째, 시제의 형태가 아닌 문맥 내에서 서술 혹은 기술을 통해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내는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에 관한 해석은 문맥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된 내포적 의미보다는 형태적 의미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

건의 직후에 일시적으로 놓여 절의 선형적 순서에 시간적 흐름이 반영되는 경우인데 이는 문장의 서술 혹은 기술과 관련한다. 문장의 배열은 동사의 형태가 가지는 의미의 부분적 요소로서 가까운 과거나 가까운 미래와 관련한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서술문에 쓰인 동사의 형태가 보통 그러한 해석을 지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의미적 속성을 부여하기에는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상대시제가 동사의 형태로부터 의미가 파생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술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일한 동사의 경우 명백히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상대시제는 문맥에 의해 적당한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순간을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해석 중 특별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되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호환가능한 시간 부사어들이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 부사어들과 호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과거와 먼 과거(remote past)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대과거의 일시적 위치는 반드시 현재와 거리가 멀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과거에 의해 언급된 과거 속의 상황의 위치와 현재의 순간 사이에 단지 이를 중재하는 기준점이 존재할 뿐 그 둘 사이의 간격은 극미하게 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과거는 중재하는 기준점을 요구하지만 먼 과거의 경우 그렇지 않다. 단순히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상황의 일시적 위치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간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섯째, 기준점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시제의 유의미성에 관해 사용빈도를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해본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 속의 미래(so-called conditional)에서 발전한 형태인 조건완료문이 있다. 조건완료문의 해석은 미래 속의 과거를 다시 과거에 두는 과거 속의 미래완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past in the future in the past or future perfect in the past). 기준점은 총 두 개가 나타나며 첫 번째 기준점과 상대적으로 두 번째 기준점을 잡게 된다. 상황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두 번째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구성을 가진 시제는 낮은 빈도율로 인해 결과의 유의미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한을 두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완료(perfect)는 태과거와 미래완료가 속하는 절대상대시제와는 개념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한다. 절대상대시제는 현재의 순간과 상대적인 시간관계를 이루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황을 위치시킨다. 하지만 완료의 경우 기준점을 현재의 순간과 동일하게 두고 상황을 그 이전에 위치시키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과거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지만 시간의 위치로 보면 공통점을 공유하는 완료를 절대상대시제의 영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Comrie의 전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현재완료는 시간위치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없다. 누군가 I have done it 또는 I did it이라고 발화한 경우 이 둘의 상황시 E는 동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차이점은 “current relevance”라는 개념으로부터 기인한다. Jespersen(1924)은 이미 그의 연구에서 “element of result”라는 개념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데 이는 Comrie의 정의에 의해 구분된 의미론 영역의 일부는 아니다(Harder, 1996:323). 이 외에 McCawley(1981) 역시 완료를 단순과거시제와 유사하게 보고 있으며 Slobin(1994)과 Michaelis(1998)는 과거적 시간지시

를 가지는 둘의 쓰임은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한다 (Michaelis, 200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료를 절대상대시제의 영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속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를 조사할 때 간접화법 이외의 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간접화법의 경우 원리상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고하는 사람의 직시를 중심으로 현재의 순간과 관련지은 해석(the deictic centre analysis)도 가능하지만 종속절의 동사를 앞선 주절의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과거로 후치이동을 시키는 시제순서 중심의 해석(sequence of tenses analysis)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치이동을 통한 시제순서 중심의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속 미래는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직시 중심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상황을 두는 과거시제는 비록 존재 가능하긴 하지만 과거 속 미래에서 이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간접화법은 절대상대시제를 조사하는데 좋은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3.3.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상대시제 및 교과서 속의 시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심정하(2004)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라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의 시제체계에 대한 이해력을 알아보고, 이를 모국어 학습자의 시제체계 습득 경향과 비교해보며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시제체

순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지는 Buczowska와 Weist(1991)의 논문⁵⁾과 Lyyinen, Weist 그리고 Wysocka (1991)의 논문⁶⁾의 이해력 테스트에 사용된 것을 발췌하여 절대시제·제한된 상대시제·자유로운 상대시제의 세 가지 시제체계로 구분하고 그림과 문장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과거/미래 대조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며 부사구 대조, 과거진행/단순과거 대조, before/after대조, 현재완료/단순과거 대조, when/then 대조, 과거완료/단순과거 대조의 순서로 점차 줄어드는 정답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시제체계 중에서 절대시제 체계가 86.9%로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상대시제 체계는 제한된 상대시제 77.8% 그리고 자유로운 상대시제 66.9%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교과서 시제제시 순서에 있어서는 현재진행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인식은 과거와 미래시제 대조를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영어교재의 형태소 도입순서와 빈도가 습득 순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어 둘의 상관관계는 큰 시사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력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상대시제 체계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상대시제와 교과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은지(2002)는 한국어의 시제를 소재로 하여 종속절에서 나타나는 시제의 내포적 의미와 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정형동사와 비정형동사에 대한 구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제표시(tense marker)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

5) Buczowska. E., & Weist, R. M. (1991). The effects of formal instruction on the second-language acquisition of Temporal Location. *Language Learning*, 41(4), 535-554.

6) Lyytinen, P., Weist, R. M., & Wysoka, H. (1991).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emporal syste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6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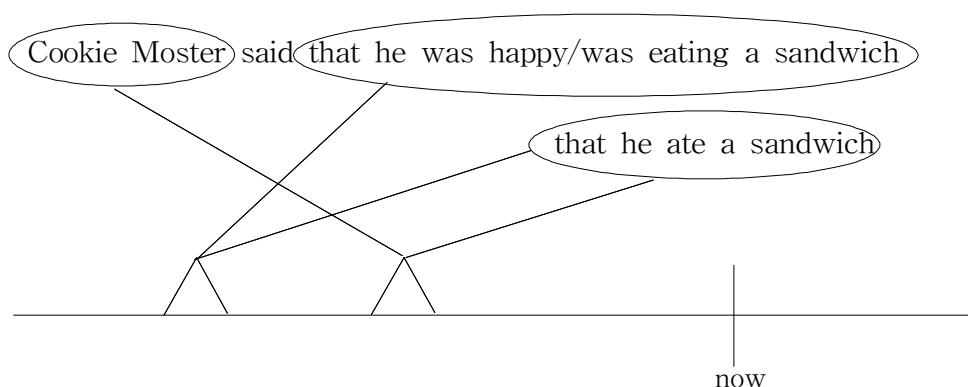
지시와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적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속절 내에서 사용되는 시제표시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지며 주절에서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나눈다. 영어의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는 종속절이나 구에 쓰인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바로 [-tense]의 자질을 가지는 비정형동사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은지(2001)는 한국어 서술문의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에 관한 종전의 연구들이 모든 종속절 내의 시제가 불분명(unspecified)하며 조응적(anaphoric)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제(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다루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Renaat Declerck(1995)는 영어의 과거시제가 절대시제가 아닌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도 해석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영어가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를 모두 가진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여태껏 시제의 형태가 동시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해 왔지만 화용적 해석이 아닌 시제 형태의 의미론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시제를 상대시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형태에 관한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과거시제를 절대시제 관점과 상대시제 관점으로 구분하는 여섯가지의 테스트를 통해 1991년의 시제모델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Declerck(1995)는 일시적 영역(temporal domain)에 관한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 영어의 시제체계 모델에서는 상대시제가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있다. 각각의 시제는 오직 하나의 정해진 의미만을 지닌다는 일반적인 시제와 달리 몇몇

시제들은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의 연구에서 상대시제에 관한 연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Bart Hollebrandse(2006)은 영어, 폴란드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이탈리아어의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두 가지의 요소가 유럽어의 상대시제에 상대시제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완료상(perfective)과 미완료상(imperfective)을 구분 짓는 시제(tense)와 관계절(relative clause)과 보충어(complements)를 나누는 구조(structure)에 대한 개념이 그것이다. 특히 영어의 미완료형(imperfective form)을 상태와 비상태(state vs. non-state)로 구분하며 각각 단순과거(simple past for states)와 진행(progressive for non-states)을 그 예로 들고 있다. Hollebrandse(2006)는 이 두 형태가 미완료적인 의미(imperfective)와 동시에 보충적인 의미(complementation)를 함께 지닌다고 밝히며 상대시제를 다음과 같이 가시화하였다.

- (29) a. John said that he was happy.
 b. John said that he ate a sandwich.
 c. John said that he was eating.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대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 방법을 모색한 결과 정규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를 접목하여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상대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에 관한 빈도분석을 통해 현행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시제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의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살펴본 후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상대시제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관련한 상대시제에 관한 하나의 수업표본을 제시하여 본 연구가 교실 수업에서 직접 활용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교과서 제작 시 또는 수업 시 고려해볼 수 있는 상대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시제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3.3 제7차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

가. 목표

제7차 영개정교육과정의 영어과 목표는 영어를 이용한 일상생활 속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함양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초로 문화발전에 더욱 공헌하며 나아가 세계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7차 중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다. 영어로 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다.

나. 특징 및 내용

제7차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를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수업시수’에 맞추어 교과(군)별로 수업시수를 최대 20%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기준수업시수’란 종전의 교육과정에서 ‘최소수업시수’라는 용어로 사용되던 개념이다.

기존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교과목별 수업시수를 제시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하지만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과 교과군으로 묶어서 제시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이나 수준,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 학년, 학기별로 배워야 할 과목과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군, 교과군과 연계한 집중이수는 배우는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자 한다. 동일 교과를 2~3시간 연속하여 수업하는 블록타임제 운영은 토론과 발표, 탐구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밀도 있는 수업 역시 가능하게 한다. 수요자 중심의 영어 학습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운영 면에 더 큰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A, B 그리고 C 3종의 본문에 나타난 상대시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과서 내에서 상대시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자체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3종의 교과서에서 수집한 상대시제의 구문의 수는 193개이다. <표 3>은 상대시제를 순수상대시제와 절대상대시제로 크게 구분하여 교과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출판사 별로 나타낸 것이다. 백분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표 3> 출판사별 상대시제 사용빈도

교과서 항목	A	B	C	계
순수상대시제 (%)	52 (77.61%)	49 (80.33%)	52 (80%)	153 (79.27%)
절대상대시제 (%)	15 (22.39%)	12 (19.67%)	13 (20%)	40 (20.73%)
계	67	61	65	193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순수상대시제가 절대상대시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빈도율을 통해 살펴보면 순수상대시제와 절대상대시제는 각각 총 79.27%와 20.73%를 차지하며 약 4: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각 출판사 별 교과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순수상대시제와 절대상대시제를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각 상대시제별 사용빈도

항목	교과서	A	B	C	계
순수상대시제	현재 분사	36 (53.73%)	34 (55.74%)	40 (61.54%)	110 (56.99%)
	과거 분사	16 (23.88%)	15 (24.59%)	12 (18.46%)	43 (22.28%)
절대상대시제	대과거	11 (16.42%)	5 (8.20%)	10 (15.38%)	26 (13.47%)
	미래 완료	-	-	-	
	과거 속 미래	4 (5.97%)	7 (11.48%)	3 (4.62%)	14 (7.25%)
계		67	61	65	193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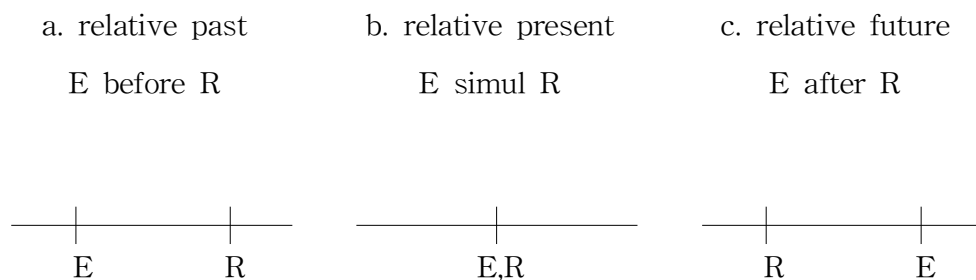
사용빈도는 각각 56.99%, 22.28%, 13.47% 그리고 7.25%를 보이며 순수 상대시제의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절대상대시제의 대과거, 과거 속 미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완료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순수상대시제 중 현재분사는 총 56.99%의 빈도율을 보이며 22.28%를 차지하는 과거분사에 비해 약 두 배 이상의 사용빈도를 보였다. 교과서별로도 대체로 비슷한 빈도율이 나타나고 있다. 절대상대시제에서는 대과거가 총 13.47%를 차지하며 7.25%의 빈도율을 보이는 과거 속 미래에 비해 역시 약 두 배 가량 더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 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종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과거 속 미래의 사용빈도가 더 높은 교과서의 경우 대과거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명확한 과거적 시간지시를 나타내는 과거분사와 대과거에서는 13.47%를 보이는 대과거에 비해 과거분사가 22.28%로 더 많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출판사별 교과서별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띈다.

4.1 순수상대시제(Pure relative tense)

Comrie(1985)는 현재가 아닌 문맥에서 주어지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황을 위치시키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는 종속절에서 나타난 비정형 동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예로 분사를 꼽고 있다. 분사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가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의 하나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대응되는 관계절을 통해 각각의 시간지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되었듯 주절의 동사시제에 의해 나타난 시점과 현재의 순간이라는 시점을 제외한 다른 시점이 문맥을 통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간지시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분사를 각각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나누어 출판사별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그림 1>은 Comrie(1985)의 연구를 토대로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각각 묘사하고 있는 순수상대시제이다.

<그림 1> 순수상대시제의 시간지시(Comrie, 1985)



4.1.1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

주절의 정형동사가 과거시제이며 종속절의 비정형동사가 현재분사의 형태를 띠는 예문을 중심으로 시간지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0) The designer said the words were used not as a message but as a beautiful pattern on the dress, showing the beauty of the Korean alphabet. [A,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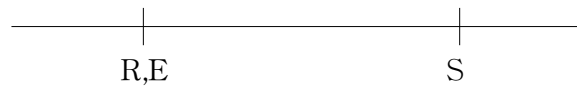
순수상대시제에 관한 Comrie(1985)의 연구에 따라 (30)은 각각 주절 내 정형동사의 과거시제를 따르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현재의 순간을 초점을 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모두 가진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분사는 기준점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시간지시에 따라 조금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응되는 관계절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현재분사의 형태로 나타난 비정형동사는 현재진행과 과거진행의 동사를 가지는 관계절을 통해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낼 수 있다. Comrie(1985)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Reichenbach(1947)은 이러한 현재진행과 과거진행의 시간지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림 2> 과거진행의 시간지시(Reichenbach, 1947)

simple past, extended: $ET = RT < ST$

I was meeting Lisa.



<그림 3> 현재진행의 시간지시(Reichenbach, 1947)

present, extended: $ET = RT =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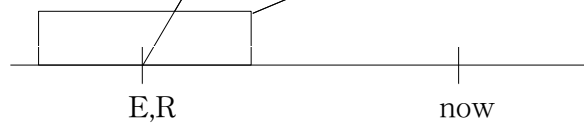
I am meeting Lisa.



앞서 제시된 Comrie(1985)의 순수상대시제에 관한 그림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선 발화시가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E와 R이 나타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ET와 RT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구자의 연구를 종합한 예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30-a) The designer said the words were used not as a message but as a beautiful pattern on the dress which were showing the beauty of the Korean alphab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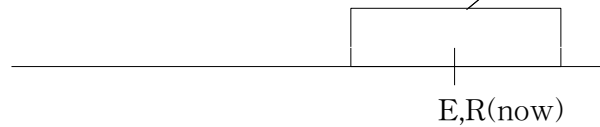


(30-a)는 showing의 시간지시를 본동사 used의 시간지시와 동일하다고 보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과거로 보고 있을 뿐 문맥 상 과거의 어느 시점에 위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형동사의 시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점이 아닌 기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30-a)에서는 were used 이외의 또 다른 정형동사 said가 존재한다. 두 가지의 정형동사 said와 were used의 시간관계는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 시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이미 정형동사들의 시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연구대상의 범위에서 제한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상대시제의 해석은 가장 근접한 정형동사의 절대시제를 따른다는 Comrie(1985)의 연구에 따라 showing의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는 가장 근접한 were used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은 (30)에 소개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이다.

(30-b) The designer said the words were used not as a message but as a beautiful pattern on the dress which are showing the beauty of the Korean alphabet.



(30-b)는 현재의 순간을 기준으로 잡고 상황을 이와 동일시한 경우이다. 정형동사인 *were used*의 시간지시를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잡고 *showing*을 이와 분리시켜 현재의 순간에 두고 있다. 진행형의 특성상 역시 시점보다는 기간으로 나타내어진다. 이와 같은 시간지시를 따르는 해석은 드레스에 적힌 한글이 하나의 아름다운 패턴으로 사용되었다고 디자이너가 과거 말한 적이 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이 드레스에 비춰지는 상황이 과거에 종료되었다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상 문장 속에서 나타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예문이다.

(31) a. A clever cook decided not to ferment the fish and served sushi using fresh raw fish instead. [B,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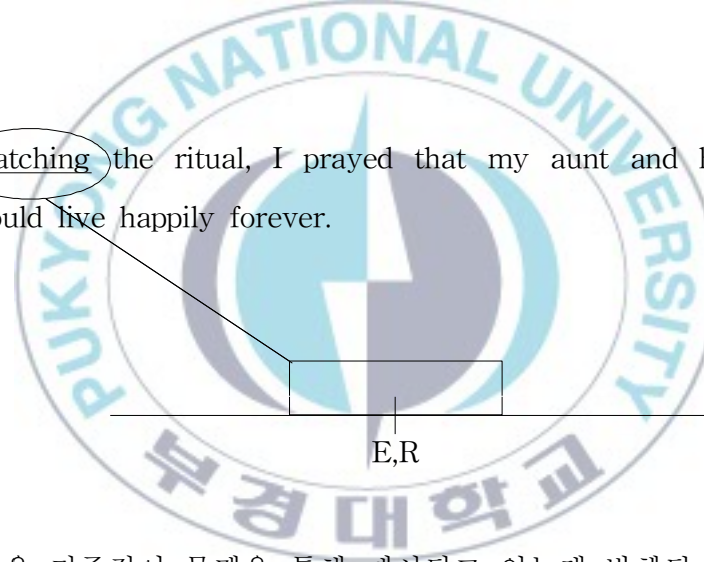
b. It is thought that “this” developed naturally when the milk was fermented by bacteria living inside the bags. [C, p.123]

(31a)와 (31b)도 근접한 정형동사의 시간지시를 따르는 상대시제 관점에서 시간지시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형동사의 시제가 (30-a)와

같이 과거이므로 과거적 시간지시를 따르게 된다.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둔다면 (30-b)와 같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적 해석 역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 역시 비정형동사의 시간지시를 동일한 문장 내에서 나타난 기준점과 일치시킬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한 비정형동사의 형태를 지니지만 주절에 드러난 시간지시 또는 현재의 순간 그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고 시간 부사어 또는 문맥에 의해 제기된 기준점을 따라 시간지시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32) Watching the ritual, I prayed that my aunt and her husband would live happily forever. [A, p.115]



(32)의 경우 기준점이 문맥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발췌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day we attended the wedding ceremony. Their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was quite interesting. A ritual called *phere* was performed. During the ritual, the groom's clothes and the bride's dress were tied together ...

[A, p.115]

본문의 첫머리에 언급된 today가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watching은 today를 중심으로 위치하게 된다. 본문의 내용은 일기의 형식으로 today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을 과거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어느 순간을 시점으로 잡지 않고 today라는 시간 부사어의 삽입을 통해 watching의 일시적 위치를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연도 또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 기간을 시간 부사어의 형태 또는 확장된 문맥을 통해 제시하며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33) a. Today, she even hugged me, disgracing me greatly. [B, p.90]
 b. Although Yakjeon died lonely in 1816 after being exiled for 16 years, he is remembered not only as a friend of the common place people but also as a great scientist. [B, p.181]
 c. However, in 2002, twelve countries belonging to the E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created the euro, a common currency to be shared by all of them. [C, p.62]
 d. It was constructed over a period of 22 years, employing 20,000 workers and over 1,000 elephants. [C, p.161]
 e. Ironically, he died of pneumonia that same year, after walking home through a snowstorm. [C, p.184]

(33a)의 경우 시간 부사어 today가 (33c)는 시간 부사어구 in 2002가 그리고 (33e)의 경우 문맥 속에서 제시된 시간 부사어 1931이 각각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구체적인 시점이 아닌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33b)의 현재분사 being은 정약전이 죽은 1816년까지의 16년의 기간을 나타낸다. 타지마할에 대한 설명인 (33d) 역시 타지마할의 건축년도가 1653년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employing에 해당하는 22년 이상의 걸친 건축 기간은 대략 1633년도에서 1653년까지를 의미한다.

4.1.2 과거분사(Past participle)

주절의 정형동사가 과거이며 종속절의 비정형동사가 과거분사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간지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34) When Labon came down the next morning and saw that there were no mice caught in the traps, he smiled but said n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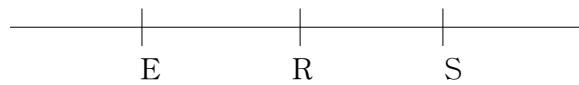
[A, p.33]

종속절에서 과거분사로 나타난 비정형동사의 경우 역시 상대시제 관점에서 시간지시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Comrie(1985)에 따르면 과거분사의 형태를 띤 비정형동사는 능동태 또는 수동태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과거적 시간지시를 가진다고 한다.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는 대과거와 완료가 있으며 Reichenbach(1947)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대과거의 시간지시(Reichenbach, 1947)

past perfect: $ET < RT < ST$

I had met Lisa.



<그림 5> 완료의 시간지시(Reichenbach,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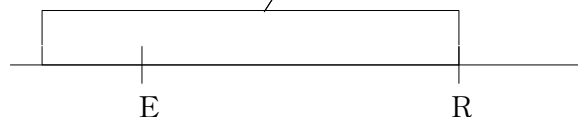
present perfect: $ET < RT = ST$

I have met Lisa.



관계절과 그림을 통해 (33)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34-a) When Labon came down the next morning and saw that there were no mice which had been caught in the traps, he smiled but said nothing.



(34-a)는 were의 시간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형동사 caught를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를 대과거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형동사 were의 시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에 해당한다. 대과거가 과거 이전의 더 오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때 caught 이전의 과거에서 그 기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 속에서 나타난 문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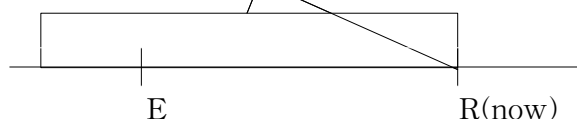
When he got home, he put the glue on the bottom of the mouse traps and stuck them on the ceiling. Then he baited them carefully with pieces of cheese and set them to go off. That night the mice came out of their holes and saw the mouse traps on the ceiling.

[A, p.33]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해 대과거의 시작점은 쥐덫을 설치한 밤 어느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래의 문장 속 시간 부사어 next morning을 통해 하루가 지나 Labon이 쥐덫을 살펴보기까지 소요된 총 기간이 모두 had been caught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현재분사와 마찬가지로 정형동사 came과 saw 사이의 시간관계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은 (34)에 해당하는 문장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과거적 시간지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34-b) When Labon came down the next morning and saw that there

were no mice which have been (recently) caught in the traps,
he smiled but said nothing.



(34-b)는 현재순간까지를 기준으로 잡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기준점의 시작은 (34-a)와 마찬가지로 전날 밤 어느 즈음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순간까지가 have been (recently) caught에 모두 해당된다. 정형동사 were이 아닌 현재의 순간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므로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지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5) a. On it were the words written in Hangeul, “신흥호남향우회.”

[A, p.146]

b. We brought in anything that we thought would help, even little shampoo bottles and face cream – you know, the stuff given as a sales promotion.

[A, p.164]

c. Looking at all those wonderful things displayed in the museum, I couldn't help thinking about our national treasures in other foreign museums.

[B, p.125]

과거분사를 비정형동사로 가지는 위의 예문들 모두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적 해석과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적 해석이 가능하다. 주절의 정형동사가 모두 과거시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비정형동사들을 그 이전에 위치시킬 경우 (34-a)와 같이 대과거와 동일한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재순간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4-b)와 같은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지게 된다.

현재분사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역시 문맥에 의해 주어진 기준점을 따를 수도 있다. 이 때 시간지시는 시간 부사어 또는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을 통해 제시된다.

(36) Covering over 10% of the island, the heritage site actually consists of three separate areas - Goemunoreum, one of the finest lava tube systems in the world; Seongsan Ilchulbong, a huge bowl-like mountain formed during a volcanic eruption; and 1,950-meter high Mt. Halla,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 Korea. [C, p.163]



(36)에서는 during a volcanic eruption이라는 부사어구를 통해 성산일출봉이 형성될 수 있었던 약 5천년의 화산폭발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록 구체적인 연도와 기간은 본문 내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산일출봉의 화산폭발이 5천년 전 즈음에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시점을 토대로 기준점과 상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지 막연한 과거를 언급하는 단순과거시제와는 다르다. 다음은 교과서에 언급된 유사 예문들이다.

(37) a. At the *Salone Internationale del Mobile*, a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held in Milan, Italy in April 2006, an exhibition showed household goods decorated with different Hangeul characters. [A, p.147]

b. The style of sushi eaten in Japan today emerged in the 18th century. [B, p.36]

(37a)에서는 April 2006라는 기준점이 (37b)에서는 today와 in the 18th century라는 구체적인 기준점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37a)는 시간 부사어 April 2006를 통하여 전시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과거분사 held를 2006년 4월이라는 구체적인 과거의 시점에 고정시키고 있다. (37b)의 경우 시간 부사어 today는 과거분사 eaten의 시간지시를 그리고 시간 부사어구 in the 18th century는 정형동사 emerged의 시간지시를 각각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4.2 절대상대시제(Absolute relative tense)

절대상대시제는 현재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기준점을 잡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상황을 두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통합한 시제이다. 이 장에서는 영어의 대과거, 미래완료 그리고 과거 속 미래를 중심으로 절대상대시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대과거와 미래완료가 시간 부사어와 함께 쓰일 경우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하나는 시간 부사어를 통한 시간지시를 기준점 R로 잡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대과거 또는 미래완료를 통해 나타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 일어난 시점 E를 나타내므로 문맥을 통해 따로 기준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이다.

4.2.1 대과거(Pluperfect)

Comrie(1985)에 따르면 대과거는 기준점을 과거에 두고 상황을 더 이전에 두는 ‘과거 속의 과거’를 의미한다. 시간 부사어를 대동하는 대과거는 Reichenbach(1947)와 Comrie(1981, 1985)에 따라 두 가지의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간 부사어가 상황이 일어난 시점 E를 명시하는 ‘과거 속의 과거(past in the past)’의 관점에 따르거나 기준점 R을 나타내는 ‘과거 속의 완료(perfect in the past)’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래는 교과서에서 발췌된 예문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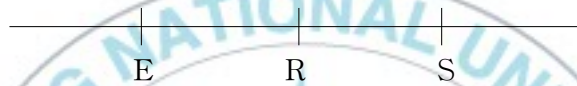
- (38) After that summer, Sylvette began to paint as bravely as Picasso had taught her to. [C, p.144]

Reichenback(1947)는 대과거를 $ET < RT < ST$ 로 구분하고 있다. Comrie(1985) 역시 절대상대시제의 유형의 하나인 대과거를 E before R before S 로 설명하여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6> 대과거의 시간지시(Comrie,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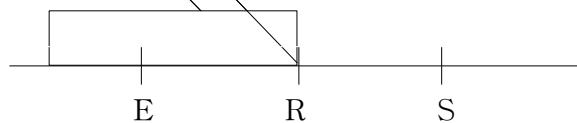
pluperfect

E before R before S



(38)의 예문에 등장하는 시간 부사어구 that summer은 위의 시간지시에 관한 그림에서 E 또는 R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를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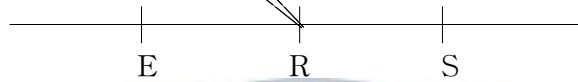
(38-a) After (that summer, Sylvette began to paint as bravely as Picasso had taught her to. [C, p.144]



(38-a)는 시간 부사어 that summer이 기준점 R이 되어 had taught her to에 해당하는 상황 E를 그 이전에 두는 경우이다. 피카소가 그해 여름까지 용기를 북돋아준 결과 그 이후로 당당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38-b) After that summer, Sylvette began to paint as bravely as
Picasso had taught her to. [C, p.144]



(38-b)에서 시간 부사어 that summer이 had taught her to에 해당하는 상황 E의 시점이다. 피카소가 용기를 북돋아준 시기인 그 해 여름 이후로 당당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점이 되는 경우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따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다음 예문은 구체적인 연도를 기준으로 두는 경우이다.

(39) By 2006, 20 percent of the land in China had become desert. [B, p.73]

대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종속절과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주절이 함께 쓰여 주절의 시제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할 수도 있다.

(40) a. The next night when the mice came out of their holes they were still joking and laughing about what they had seen the night before. [A. p.34]

b. Although we went to the Delhi train station early in the morning, many tourists had already gathered there.

[A, p.113]

c. Later I heard from my father that the old man had come to this garden every week since his wife died 20 years ago.

[A, p.114]

d. When the whole situation was over, she looked up to thank the two men who had saved her life, but they had already gone.

[B, p.214]

e. While Picasso worked, Sylvette began telling him the secrets that she had locked away and tried to forget.

[C, p.142]

f. He told her he wanted a microscope to see snowflakes up close, so she gave him an old microscope she had used when she was a teacher.

[C, p.182]

(40a)는 the night before를 기준으로 삼아 had seen에 관한 내용을 기준점 이전으로 두고 있다. (40b)에서는 early in the morning이 기준점이 되어 had already gathered에 관한 상황을 기준점 앞에 위치시킨다. (40c)에 나타난 had come은 heard를 기준으로 20 years ago라는 시간 부사어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40d)의 had saved와 had already gone은 she looked up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0e)의 예문에서는 began telling이 기준이 되어 상황에 해당하는 had locked away를 그 이전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40f)는 when she was a teacher를 기준으로 had used를 재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 있다.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통해 기준점 R과 상황의 시점 E를 정하는 위와 같은 예문들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의 위

치를 바꾸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독립된 절들이 결합하여 기준점과 상황이 설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41) It was 1814 that Yakjeon finally completed Jasaneobo after 10
years of research ... It is also surprising that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Yakjeon thanked the fishermen who had helped him.

[B, p.180]

(41)에 등장하는 had helped의 기준점은 문맥 속에서 독립된 절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어보’를 출간하게 되는 1814년이 그 기준점이 되는데 책의 서두에 등장하는 had helped와 관련한 상황은 1804~1814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4.2.2 미래완료(Future perfect)

미래완료는 기준점을 미래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과거가 가지는 의미와 유사하며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의 결합에 의한 형태로서 기준점을 미래에 두고 상황을 기준점 이전에 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세 권의 교과서에서는 조동사적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couldn't have done [C, p.83] 또는 should have you checked out [C, p.102] 등과 같은 예문만 존재할 뿐 다음과 같은 시간지시를 가질 수 있는 미래완료를 가진 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7> 미래완료의 시간지시(Comrie,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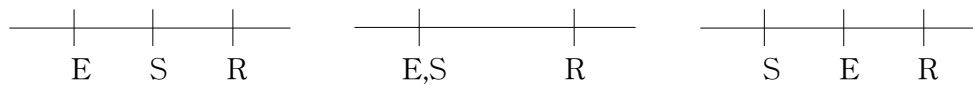
future perfect

E before R after S

E before S

E simul S

E after S



4.2.3 과거 속 미래(Future in the past)

과거 속 미래는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상황을 그 이후인 미래에 둔다. 비록 조동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성을 지닌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높은 빈도율을 보인다.

(42) I promised I would come every Saturday.

[B, p.216]

(42)의 예문에서 과거 속 미래의 의미를 지닌 would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속 미래는 미래완료와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시간지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상황의 시점 E와 발화시점 S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Comrie(1985)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림 8> 과거 속 미래의 시간지시(Comrie, 1985)

future in the past

E after R before S

E before S

E simul S

E after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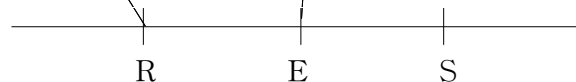
E before S, E simul S 그리고 E after S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관계는 과거 속 미래라는 테두리 내에서도 시간지시를 달리하며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예문과 또 다른 예문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42) I promised I would come every Saturday. [B, p.216]



(43) A few months ago, my parents and I were enormously surprised by the news that my aunt would be marrying an Indian man.

[A, p.112]



(42)에 쓰이고 있는 *would*는 발화시점 S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시점에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는 달리 (43)의 예문에서 상황이 발생한 시점 E는 발화시점 S 이전에 확실히 위치하고 있다. 시간선 상에서 각 시점을 구체적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속의 미래 역시 시점 또는 기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4.3 Sample Lesson Plan

Level: Low intermediate

Time: 20min

Aims:

- Students are able to ...
 1. recogniz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present participle according to absolute time reference, relative time reference or the other time reference with some other time point given by the context as a reference point, which can be offered as an adverbial of temporal location.
 2. express the different relationships of the present participle with various time references on the timeline.
 3. make up a storyline with given four words and the present participle form based on the meaning of the target structure.

Assumed knowledge:

- Students have been taught the general idea about the meaning and the form of the present participle clause(affirmative, negative, yes/no questions and short answer form, Wh-questions).
- Students are familiar with the meaning, structure and its usage of the relative clause.
- Students might have difficulty finding the reference point for the participle from the context.

Anticipated problems:

Meaning:

- Students might have possible confusion between present participle and gerund because of the same -ing form.
- Students may not understand the participle in the phrase does not always have the same time reference as the verb in the main clause.
- Students might have difficulty finding the reference point for the participle from the context.

Form:

- Students might forget to drop the silent -e at the end of a word when adding -ing.
- Students may forget to double the final consonant before adding -ing in verbs ending with 'consonant + vowel + consonant' or 'qu + vowel + consonant.'
- Students might not remember the final consonant is never doubled in verbs of more than one syllable if the stress is not on the final syllable and the verbs with the letters h, w, x and y.
- Students may fail to remember to add the suffix -ing to the base form of the verb.
- Students might have trouble putting a comma when present participle phrase comes earlier than the main clause.

Aids: Textbook C(p.41), Attachment 1~4, Answer sheet 1~4, Chart papers, Board, Chalks, Board Erasers, Pens, Erasers, Markers, Magnets

Language analysis:

Model Sentences:

Participle
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tomorrow).
Corresponding Relative Clauses
I saw children who we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I saw children who are now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I saw children who are going to sit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Check Meaning/ Concept Check Questions:

1. Is the time reference of present participle always simultaneous with the time reference of the main verb? (no)
2. How many time frames are the present participle able to have? (three; past, present, and future)
3. What do they, the time adverbials and context, provide for sentence interpretation? (reference point)
4. Is present participle always interpreted as simultaneous with the reference point? (yes)

Forms:

Participle	
verb + -ing	
Corresponding Relative Clauses	
relative pronouns	were +verb + -ing
	are +verb + -ing
	will be + verb + -ing

<표 5> Sample Lesson Plan

Time	Stage	Procedure	Aims	Focus
4min	Setting context	<p>Teacher shows the following sentence on the board and has students guess different meanings it could have. Teacher asks two students the possible time point of 'sitting', regarding the main verb 'saw' and how it turns out to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p> <p>- "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p> <p>Then students work in pairs matching the sentences to each slight different situation.</p> <p>【see Attachment 1】</p> <p>Teacher checks answers orally with the whole class.</p> <p>【see Answer sheet 1】</p>	<p>To provide a context for different interpretation</p>	<p>T↔Ss</p> <p>S↔S</p> <p>T↔Ss</p>
1min	True-false questions	<p>Students do Exercise 1 individually.</p> <p>【see Attachment 2】</p> <p>Teacher checks answers orally with the whole class.</p> <p>【see Answer sheet 2】</p>	<p>To check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p>	<p>S</p> <p>T↔Ss</p>
5min	Check meaning of target structures	<p>Students do Exercise 2 in pairs.</p> <p>【see Attachment 2】</p> <p>Teacher checks answers orally with the whole class.</p> <p>【see Answer sheet 2】</p>	<p>To define meaning of structures and create need for them</p>	<p>S↔S</p> <p>T↔Ss</p>

		<p>Students mark reference point(R) and moment of event(E) on the timeline based on the previous exercise in pairs.</p> <p>【see Attachment 3】</p> <p>Teacher writes down the answers on the board and checks them with the whole class.</p> <p>【see Answer sheet 3】</p>		<p>S↔S</p> <p>T↔Ss</p>
1min	Form check	<p>Students do Exercise 3 individually.</p> <p>【see Attachment 2】</p> <p>Teacher writes down the answers on the board and checks them with the whole class.</p> <p>【see Answer sheet 2】</p>	<p>To focus on form of structures</p>	<p>S</p> <p>T↔Ss</p>
1min	Pairing of students	<p>Teacher gives individual students one of the alphabets from A to D. Students with the same alphabet work as a team.</p> <p>Students sit with their group members.</p>	<p>To have students work with different partners</p>	<p>T↔Ss</p> <p>S↔S</p>
1min	Introduction of the activity	<p>Teacher gives each team one of the four different cards and a chart paper with a marker. Each team makes up a story with at least four sentences based on the card. Each card has four words. One of the sentences in the story is made with two different verb forms given from the card and has present participle phrase structure. The participle should be able to correspond with</p>	<p>To check that students have understood the instructions</p>	<p>T↔Ss</p>

	Instruction check	<p>the be- verb form in the card when transformed to the relative clause. After they finish up the writing, one of the team members posts it on the board.</p> <p>How many sentences do you write at least?</p> <p>(four)</p> <p>Do you include the present participle form? Then how many?</p> <p>(yes, one)</p> <p>Do you put two verb forms on the card in each different sentence?</p> <p>(no, in the same sentence)</p> <p>Should the storyline be based on how the present participle would be corresponded to the given be- verb form in the relative clause?</p> <p>(yes)</p>		T↔Ss
5min	Students do activity	<p>Students work as groups and write a story on the chard paper.</p> <p>Teacher walks around the class and gives minimal intervention and little correction to each team while activity.</p>	To exchange information for practice	<p>S↔S</p> <p>T↔Ss</p>
2min	Reporting	<p>Teacher asks two students to pick up a story on the board each. Whole class read them aloud together.</p> <p>Teacher and students find how the sentences including participle form can be interpreted based on the context.</p>	<p>To check reference point and event time from different stories</p>	<p>T↔Ss</p> <p>T↔Ss</p>

[ATTACHMENT 1]

* Match the most suitable situation below with the following sentence.

	Situation
A	Lee hyo-ri is sitting down on the windy and dusty road of Africa under the strong sunlight to take a rest after the long walk toward the refugee camp. Suddenly, she could hear a group of children are laughing together and making fun of each other even though they are wearing tattered clothes. Now, she is having a busy time introducing herself to other volunteers, reading the brochure before the opening event. She is so surprised that the children she saw earlier are here.
B	Lee hyo-ri is playing skipping and hide and seek with other volunteers in the refugee camp as there's nothing to do. After a while, she comes up with an idea of collecting soccer balls and sending them to children in Africa. She is putting the posters on the board inside and outside the campsite which include some information about it. While she is posting them, so many children who live outside the campsite ask when and how they can get the balls in the refugee camp. She now tells her team leader the positive response for the event tomorrow from the children.
C	Lee hyo-ri is now having an interview with one of the KBS entertainment news programs at the airport right after her trip to Africa. She has so much to tell regarding her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a group of 300 teenagers from 48 countries and the children in the refugee camp. Her memories are playing backward like a series of snap shots and she all remembers every moment she had together with them while the interview.

1. "I saw children who we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
2. "I saw children who are now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
3. "I saw children who are going to sit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

[ANSWER SHEET 1]

* Match the most suitable situation below with the following sentence.

	Situation
A	Lee hyo-ri is sitting down on the windy and dusty road of Africa under the strong sunlight to take a rest after the long walk toward the refugee camp. Suddenly, she could hear a group of children are laughing together and making fun of each other even though they are wearing tattered clothes. Now, she is having a busy time introducing herself to other volunteers, reading the brochure before the opening event. She is so surprised that the children she saw earlier are here.
B	Lee hyo-ri is playing skipping and hide and seek with other volunteers in the refugee camp as there's nothing to do. After a while, she comes up with an idea of collecting soccer balls and sending them to children in Africa. She is putting the posters on the board inside and outside the campsite which include some information about it. While she is posting them, so many children who live outside the campsite ask when and how they can get the balls in the refugee camp. She now tells her team leader the positive response for the event tomorrow from the children.
C	Lee hyo-ri is now having an interview with one of the KBS entertainment news programs at the airport right after her trip to Africa. She has so much to tell regarding her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a group of 300 teenagers from 48 countries and the children in the refugee camp. Her memories are playing backward like a series of snap shots and she all remembers every moment she had together with them while the interview.

1. "I saw children who we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C)
2. "I saw children who are now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A)
3. "I saw children who are going to sit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B)

[ATTACHMENT 2]

EXERCISE 1: TRUE OR FALSE?

*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F if it's false.

1. Lee Hyo-ri is amazed at observing the children again in the refugee camp who she met on the road before. ()
2. The children whose shelter is not on the campsite are not interested in coming to the refugee camp to get the balls. ()
3. The camera is bringing back her memories in Africa, even the first moment she had with children. ()

EXERCISE 2: MEANING CHECK

*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Is the time reference of present participle always simultaneous with the time reference of the main verb? ()
2. How many time frames are the present participle able to have? ()
3. What do they, the time adverbials and context, provide for sentence interpretation? ()
4. Is present participle always interpreted as simultaneous with the reference point? ()

EXERCISE 3: FORM CHECK

Participle	Corresponding Relative Clauses	
verb + -ing	relative pronouns	were +verb + -ing
		are +verb + -ing
		will be + verb + -ing

"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tomorrow)."

Time	Relative Clause
past time	I saw children ____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present time	I saw children ____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future time	I saw children ____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ANSWER SHEET 2]

EXERCISE 1: TRUE OR FALSE?

* Write T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F if it's false.

1. Lee Hyo-ri is amazed at observing the children again in the refugee camp who she met on the road before. (T)
2. The children whose shelter is not on the campsite are not interested in coming to the refugee camp to get the balls. (F)
3. The camera is bringing back her memories in Africa, even the first moment she had with children. (T)

EXERCISE 2: MEANING CHECK

*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Is the time reference of present participle always simultaneous with the time reference of the main verb? (no)
2. How many time frames are the present participle able to have? (three; past, present, and future)
3. What do they, the time adverbials and context, provide for sentence interpretation? (reference point)
4. Is present participle always interpreted as simultaneous with the reference point? (yes)

EXERCISE 3: FORM CHECK

Participle	Corresponding Relative Clauses	
verb + -ing	relative pronouns	were +verb + -ing
		are +verb + -ing
		will be + verb + -ing

"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tomorrow)."

Time	Relative Clause
past time	I saw children <u>who were</u>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present time	I saw children <u>who are</u>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future time	I saw children <u>who will be</u>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ATTACHMENT 3]

EXERCISE 4: DRAW A TIMELINE

Find what word can be the reference time point in the sentence first.

Then locate the word for the reference point as R and the moment of event as E on the timeline by point and interval.

	reference time point: _____
	I saw children who we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reference time point: _____
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I saw children who a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reference time point: _____
	I saw children who will b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

* Reference point can be a verb in a main clause or time adverbials.

[ANSWER SHEET 3]

EXERCISE 4: DRAW A TIMELINE

Find what word can be the reference time point in the sentence first.

Then locate the word(R, reference point) and the continuous(E, event moment) on the timeline by point and interval.

<p>I saw children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p>	<p>reference time point: saw</p> <p>I saw children who we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p> <p>R now</p>
	<p>reference time point: saw</p> <p>I saw children who ar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p> <p>R E(now)</p>
	<p>reference time point: the day after tomorrow</p> <p>I saw children who will be sitting around in refugee camps tomorrow.</p> <p>now R</p>

* Reference point can be a verb in a main clause or time adverbials.

[ATTACHMENT 4]

<p>spreaded</p> <p>volunteer</p> <p>providing</p> <p>donation</p> <p><are></p>	<p>experienced</p> <p>leaflet</p> <p>distributing</p> <p>organization</p> <p><were></p>
<p>contacted</p> <p>severe</p> <p>interacting</p> <p>universal</p> <p><will be></p>	<p>promoted</p> <p>gathering</p> <p>establishing</p> <p>founder</p> <p><were></p>

V. 결론

본 논문은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총 193개의 비정형 동사를 바탕으로 상대시제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표현된 경우 순수상대시제로 구분하고 대과거, 미래완료 그리고 과거 속 미래로 나타난 경우 절대상대시제로 구분하여 각각 상대시제 구문의 전반적인 특성과 그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상대시제 구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순수상대시제가 79.27%를 차지함으로써 20.73%의 사용률을 보인 절대상대시제에 비해 약 4배가량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었다. 각 출판사별로 영어교과서를 비교해본 결과 순수상대시제는 각각 77.61%, 80.33% 그리고 80%의 빈도율을 보였고 절대상대시제는 각각 22.39%, 19.67% 그리고 20%의 빈도율을 나타내어 역시 동일하게 약 4: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시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사용빈도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대과거, 과거 속 미래의 순으로 차례대로 나타났다. 반면 조동사 보다는 절대상대시제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미래완료시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순수상대시제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현재의 순간과 기준점을 모두 고려해 상황을 두는 절대상대시제가 단지 기준점만을 고려하여 상황을 위치시키는 상대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2학년 또는 3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라는 점과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언어의 경제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현재분사의 경우 항상 기준점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나타난 경우 현재분사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서 과거진행으로 표현된 관계절과 대응할 수 있었고 현재의 순간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로서 현재진행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시간 부사어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명 또는 묘사하는 글의 경우 주절의 시제는 주로 현재였고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거나 소설, 동화 또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일 경우 주절의 시제는 주로 과거였다. 상대시제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해석이 문맥적 지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상대시제가 근접한 절대시제의 형태와 동일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영어의 분사와 관련한 시간지시의 상대성은 가장 근접한 정형동사의 시간지시 그리고 분사 자체의 시간지시로 시간지시를 각각 달리하며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간지시 속에서도 현재분사는 항상 기준점과 동일한 해석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과거분사는 능동태 또는 수동태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과거적 시간지시를 가지고 있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 쓰인 과거분사의 경우 관계절로 변형 시 주절의 시제를 중심으로 대과거를 가지는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가지는 현재완료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비록 절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내느냐 상대시제 관점에서의 시간지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대과거 또는 현재완료로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과거분사를 가진 종속절의 비정형동사는 모두 과거적 시간지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과거는 시간 부사어 또는 문맥을 통해 기준점을 과거에 두고 상황을 그 이전에 놓는데 이 때 시간 부사어는 기준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상황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상이한 해석을 낳을 수 있었다. 먼저 시간 부사어를 기준으로 간주할 경우 문장들은 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냈으나 상황시로 볼 경우 해당 문장의 전후 문맥을 통해 또 다른 기준점을 찾아야만 했다. 대과거와 함께 나타난 이러한 시간 부사어를 언제 기준시 또는 상황시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현재의 순간 이전에 위치하고 있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더 이전에 그 의미를 한정시키는 대과거는 따라서 문맥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태라고 사료된다. 과거분사와 마찬가지로 늘 과거적 시간지시를 가지는 대과거가 굳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황을 현재의 순간과 상대적으로 관련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과 비교해서 시간 순으로 나열할 필요성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대과거의 쓰임에 관해서는 전후 문맥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속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의 경우 주로 조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시성을 지닌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would의 경우 조동사 보다는 순수하게 일시성을 지니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성상 과거 속 미래는 기준점이 발화하는 순간보다 이전에 위치해야 하고 상황은 이를 중심으로 이후에 두어야 하지만 상황과 발화하는 순간 사이에 관계가 분명히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before, after, simul에 해당하는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과거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미래에 상황이 위치하지만 현재의 순간을 기준으로 보면 한정된 영역 속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골고루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상황들 중 적절한 해석은 문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시간 부사어와 함께 쓰인 예문의 경우 시간 부사어는 특정 기준점이 되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거나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며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교과서 속의 문맥을 통해 나타나는 비정형동사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상대시제의 개념과 용례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영어가 다양한 언어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상대성이라는 언어적 특성을 내포한다는 광의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가장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것이 시제와 관련한 동사라는 협의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볼 때 상대시제에 관한 교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정당화된다. 또한 개정된 7차 교과과정이 선택과목제와 블록타임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수업의 유연성이 확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학교수업을 통해 얼마든지 관련 심화수업이 실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구성 시 이러한 상대시제의 필요성을 교과서를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수자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학습자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1): 2007년 개정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별책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동원. (2009). *교육과정 패러다임 변화 따른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은주. (2008). *영작문을 통한 학습자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박수영. (2009).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의 듣기 활동 분석과 능력별 과업 유형의 선호도 및 듣기 수업에 관한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심정하. (2004).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제체계 습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이평웅. (2002). *오류 분석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청주.
- 조정례. (1988). *고교생의 영어학습에 나타난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ndersen, H. (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0, 765-793.
- Amidon, A., & Carey, P. (1972) Why five-year-olds cannot understand *before* and *after*.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 Behavior*, 11(4), 417-423.
- Bohnenmeyer, J. (2003). *Relative tense vs. aspect: The case reopened*. Presentation at SULA 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 Buczowska, E., & Weist, R. M. (1991). The effects of formal instruction on the second-language acquisition of temporal location. *Language Learning*, 41(4), 535-554.
- Bull, W. E. (1963). *Time, tense, and the verb: A study i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panish*.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Linguistics, 19.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mrie, B. (1981). On Reichenbach's approach to tense. In C. S. Masek & M. F. Miller (Eds.), *Papers from the seventeenth regional meeting* (pp. 24-30).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 Dahl, O.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lackwell.
- Declerck, R. (1991). *Tense in English: Its structure and use in discourse*. London: Routledge.
- . (1995). Is there a relative past tense in English? *Lingua*, 97(1), 1-36.
- Fanning, B. M. (1990).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Press.
- Ferreiro, E., & Sinclair, H. (1971). Temporal relationships i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6(1), 39-47.

- Fleischman, S. (1982). *The future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3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nch, L. A., & Brown, A. L. (1977). Comprehensive of *before* and *after* in logical and arbitrary sequence. *Journal of Child Language*, 4(2), 247-256.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 - 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rder, P. (1996). *Functional semantics: A theory of meaning, structure, and tense in English*. New York: Mouton de Gruyter.
- Hollerbrandse, B. (2006). *Cross-linguistic acquisition of temporal dependencies*. Retrieved May 16, 201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cost.zas.gwz-berlin.de/cost/lisbon/hollebrandse.pdf>.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 Unwin.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Routledge.
- Lee, E. J. (2001). Absolute/relative tense and identification of tense in Korean predicative clause. *Studies in Modern Grammar*, 24, 91-109.
- . (2002). Tense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clausal subordinatenes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77-99.
- Leuschner, B. (1977). Die Zeitenfolge im Rahmen einer kommunikativen

- Grammatik des Englischen: Anmerkungen zu einem Phantom.
In: *Kongressberichte der 7. Jahrestagung der Gesellschaft für Angewandte Linguistik GAL*.
- Littlejohn, A. (1998). The analysis of teaching materials: Inside the Trojan horse.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90-2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ytinen, P., Weist, R. M., & Wysoka, H. (1991).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emporal syste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67-92.
- McCawley, J. D. (1981). Notes on the English perfect.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1, 81-90.
- Michaelis, L. A. (1998). *Aspectual grammar and past-time reference*. London: Routledge.
- . (2006). Time and tense. In B. Aarts & McMahon (Eds.), *The handbook of English linguistics* (pp. 220 -234). Oxford: Blackwell.
- Olsen, M. B. (1997). A semantic and pragmatic model of 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Absolute and relative “tense.” In L. Horn (Ed.),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series* (pp. 119-129). New York: Garland Press.
- Piaget, J. (1959).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Macmillan.

Slobin, D. I. (1994). Talking perfectly: Discourse origins of the present perfect. In W. Pagliuca (Ed.), *Perspectives on grammaticalization* (pp. 119-133). Amsterdam: Benjamins.

(자료분석에 사용된 교과서)

A: 이재영 외 6인. (2008). High School English, (주)천재교육.

B: 김성곤 외 8인. (2008). High School English, (주)두산동아.

C: 이찬승 외 5인. (2008). High School English, (주)능률교육.

